“생때같은 애들 어떡해”…세월호 분향소 시민들 ‘눈시울’

세월호 참사 6주기 맞아 광주YMCA서 전시회 발길 이어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앞으로 더 또렷이 기억하겠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YMCA 2층 백제관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에서 노란리본 조형물을 본 한 어르신이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저 생때같은 애들을 어떡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 YMCA 2층 백제관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해 세월호 추모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라인 시민참여 프로젝트와 분향소 설치로 축소했다.

광주YMCA에서는 ‘부재, 304 기억의 편지’를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필사하고 아이들의 꿈을 직접 컬러링한 전시회로 대신했다.

기억의 편지 곳곳에는 경찰관, 요리사, 태권도 선수, 의사 등 아이들의 다양한 꿈이 담겨 있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희생된 아이들의 영정사진에서 짧게 묵념한 후 노란리본을 조형물에 달고 분향소에 마련된 기억의 공간을 둘러봤다.

적막만 가득한 분향소에는 간간히 눈물을 훔치는 시민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전부였다.

분향소를 찾은 이행숙씨(79·여)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영정사진을 보며, 추모의 의미로 노란리본을 대형 조형물에 걸면서 연신 눈물을 닦았다.

이씨는 “저 생때같은 애들이 한 순간에 바다 속에 잠겼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우리 애들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데 부모 마음을 오죽할까…”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씨와 함께 분향소를 찾은 최부덕씨(85·여)는 “어째서 아직까지 애들이 희생된 이유를 모르는지 당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향소를 둘러 본 이들은 세월호의 상징인 노란리본 스티커를 휴대전화에 붙이고 리본고리를 가방에 걸어가기도 했다.

분향소 앞에서 시민들에게 노란리본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던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김재희씨는 길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세월호와 리본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가 세월호를 잊지않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노란리본을 다는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시민들이 노란리본을 소지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어요.”

이정난씨(79)는 “이 조그만게 그런 힘이 있으면 당연히 달아야지”라며 노란리본을 집어들었다.

이씨는 “세월호도 알고 노란리본도 알았지만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다. 그저 상징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부터라도 노란리본을 달고 다녀야겠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간을 짬을 내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늘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았다는 김민주씨(31·여)는 경기도 안산에 살다가 광주로 내려와 세월호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는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제 동생과 나이가 같고 안산에서 살다와 남일 같지 않았다. 매번 추모제를 참석했고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더 또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들의 영정사진과 기억의 편지로 꾸며진 기억공간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너무 말을 잘들어서… 말을 잘들어서 참 그렇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세월호 참사를 접한 최정윤씨(25·여)는 “학교에서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진 친구들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다”며 “고3이었지만 야자시간까지 몰래 뉴스를 보고 구조자 수를 세보던 때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최씨는 “세월호 6주기를 맞은 만큼 세월호 7시간 문건의 진실이 밝혀져 세월호 진상규명에도 힘이 더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모아졌다.

시민상주모임 김재희씨는 “5·18민주화운동은 오랜 투쟁의 결과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망언과 폄훼발언이 있었다.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4·16의 세월호는 그만큼 유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다”며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1급수 나주 만봉저수지…물고기 떼죽음 원인규명 장기화

국과수 “농약·독극물에 의한 폐사 아니다”

전남 나주시 봉황면 만봉저수지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규명이 자칫 미궁으로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만봉저수지 물고기 폐사 원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던 국과수는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폐사는 아닌 듯하다”는 답변을 나주시에 보냈다. 나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전화로 내용을 통보받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문을 받아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시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폐사 원인검사 결과 역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폐사 원인을 놓고서는 엇갈리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즉 저수지 상류 농경지에 뿌려진 강한 알칼리 성분의 ‘성토제’가 저수지에 유입돼 폐사를 가져왔다는 주장과, 저수지 인근 500m서 진행 중인 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의 발파 때문이라는 주장, 여기에 이상저온 현상에 의한 집단 폐사라는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인규명을 진행해 온 국과수에서 폐사원인과 관련해 명확한 검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자칫 이번 물고기 폐사 원인이 미궁에 빠질 우려도 높아 보인다.

만봉저수지는 총 저수량 241만 6000톤으로 하류 수혜 농경지 면적이 153㏊에 이르는 비교적 큰 저수지로 꼽힌다.

상류에 작은 농촌마을 서너곳이

자리하고 있을 뿐 특별한 오염원이 없어 1등급 수질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달부터 원인 모를 물고기 폐사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집중적으로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발견된 지난 7일부터 1주일 동안 저수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수거한 폐사 물고기는 400㎏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함부로 먹으면 위험해요”…독초와 헷갈리는 봄나물

행정안전부가 새싹과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에 독초를 봄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독초나 독버섯 등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총 2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28명의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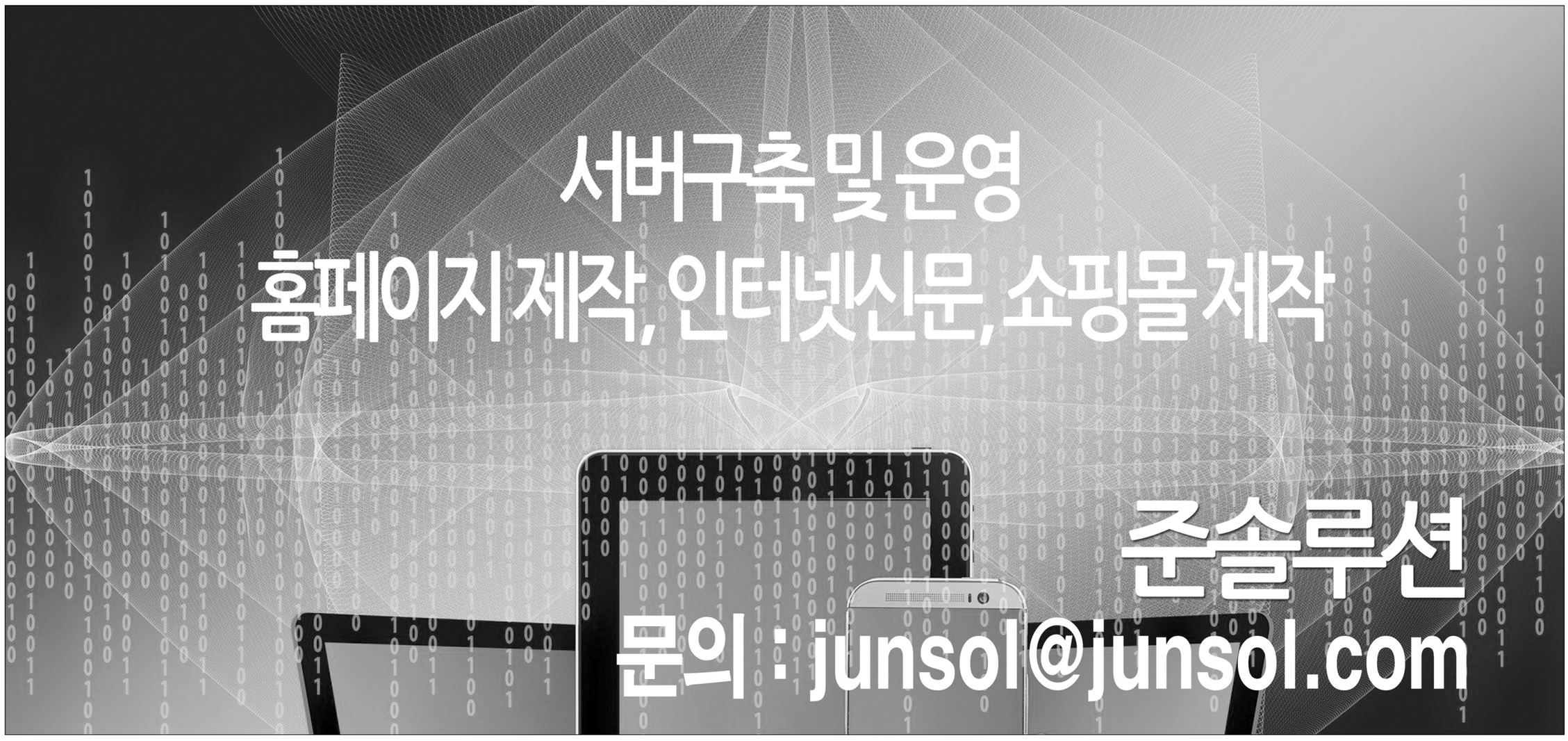
자연독은 식물성과 동물성, 곰팡이의 천연 유독 성분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자연독 사고는 주로 봄·가을에 발생하는 편이며, 이 중 봄인 3월~5월에는 6건의 사고로 4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봄철 중독사고는 야생 독초를 식용 가능한 나물로 잘못 알고 먹어서 발생하는데, 일부 봄나물과 독초의 여린 잎은 그 생김과 모양이 매우 비슷해 구분이 어렵다.

봄철 독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우선 식용 나물과 독초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사진 등의 자료에 의지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니 잘 모르는 산나물은 채취하지도, 먹지도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먹을 수 있는 산나물 중에서도 원추리순,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은 미량의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한다.

흔히 산나물로 혼동하기 쉬운 독초로는 여로(식용 원추리와 비슷)와 동의나물(식용 곰취와 비슷), 박새(식용 산마늘과 비슷), 삿갓나물(식용 우산나물과 비슷) 등으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산나물을 먹은 후 구토와 복통·설사,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먹던 산나물을 병원으로 가져가 확인해야 한다.

강아라 기자